

세계 최대 국제불교영화제 열린다

날마다좋은날 주최, 8월 26일 개막

최다상영작, 동아시아서 최초
15개국 영화 · 다큐 62편 소개
영화무료…선착순 사전예약도
타 영화제 대비 2~10% 예산
동국대 학생 · 봉사자 참여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세계 불교영화를 한자리에 모은 동아시아 최초 국제불교영화제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이하 OIB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주관하는 이번 OIBFF에는 15개국의 영화 62편이 소개된다. 상영작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영화제에서는 △부처님과 큰 스님 사상을 담은 '연꽃' △사찰과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라일락' △불교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성찰 내용을 담은 '동백꽃' △첨단 사회에 공존 화두를 던지는 '수선화' △미얀마 특별전 등 주제에 맞는 5개의 섹션에서 단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이 상영된다. 또 영화제와 더불어 국제학술세미나, 청소년 영화캠프, 교구 상영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증명으로 하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이 공동조직위원장, 차승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주윤식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전임 중앙신도회장인 이기흥 회장과 차승재 교수님의 오랜 노력으로 영화제가 개막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모시지 못해 안타깝지만 첫 회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불교 자긍심 고취와 포교에도 일조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차승재 OIBFF집행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사찰이 산내에 있어 포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포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진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진행하고자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육조혜능선사비명' 의 '세계일화 조종육엽(世界一花 祖宗六葉)' 이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이번 OIBFF는 동아시아 최초 국제불교영화제다. OIBFF 전에는 종교미디어 트라이시클 창립자 가이타노 마이다가 만든 불교영화재단(BFF)이 주최하는 IBFF가 미국에서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종교방송 BOS창립자 바베스가 만든 유럽불교영화제(BFFE)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007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국제베삭불교영화제(IVBFF)가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 중에 있다.

OIBFF 운영을 총괄하는 김선아 프로그래머는 "미국과 유럽 등에 이어 동아시아에선 최초의 국제불교영화제로 상영작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세계 유수의 불교영화제를 넘어서는 국제불교영화제로 꾸며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 예산에 비해 2~10%에 불과한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 영화 상영을 이끌어 냈다.

개막식은 8월 26일 오후 4시 대한극장 7관에서 내빈과 일반 관객 약 160명(대한극장 7관 최대 수용인원 320명의 50%) 참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작인 'THE CUP(1999년, 94분)' 은 부탄 영화로 티벳불교 스승이자 영화감독인 종사르 켄체 노부의 감독 데뷔작으로 깐느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받은 수작이다.

폐막식은 8월 30일 오후 5시에 대한극장 2관에서 내빈과 일반관객 약 80명 참석으로 진행되며 영화제 결과보고 및 4개 부문(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 시상식이 열린다.

폐막작으로 상월선원 천막결사 내용을 담은 다큐 '아홉 스님(감독 윤성준, 2020, 72분)' 이 상영될 예정이다.

각 상영작 마다 10명의 씨네평가단이 배치되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영화 4편을 선정해 관객상이 수여된다.

차승재 집행위원장은 "제2회 영화제 기획 또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올해받지 않은 공개출품 등을 통해 정기적인 대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항일유산 '진관사 태극기' 보물된다

문화재청, 8월 12일 지정예고
일장기에 태극 · 사괘 형상화
함께 발견된 신문류도 '중요'



광복 제76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광복군 유물 등 항일독립유산들이 대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과 문화재로 지정 ·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진관사 태극기와 데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태극기 유물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 〈사진〉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七星閣)을 해체 ·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됐다. 신문류는 〈경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自由晨鐘報)〉 〈신대한(新大韓)〉 〈독립신문〉 등 5종이다. 이들 신문이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태극기를 숨긴 인물로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白初月) 스님을 주목하고 있다. 백초월 스님은 3.1만세운동 직후 비밀 지하신문인 〈혁신공보〉를 발간해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불교계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만주지역의 독립군 부대에 제공하는 등 국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인물이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 '진관사 태극기' 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형태상으로도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부분과 4괘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으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항일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진관사 태극기'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전산원 명칭, 'DUICA'로 변경 확정

8월3일 이사회 명칭변경 결의
설립 46년 만에 새 명칭으로
서울캠 미래융합대학원 신설

동국대 전산원(원장 손재현)이 'DUICA' 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된다. 1975년 설립된 동국대 전산원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설립 46년 만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8월 3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38회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정관 변경에는 동국대 전산원과 일산사업소, 기능직의 정관 내 명칭 변경을 주요 골자로 했으며, 이사회는 논의 후 만장일치로 변경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전산원의 명칭은 '동국대 DUICA(듀이카)' 로 변경된다. 1975년 정보처리 관련 2년 과정으로 시작된 동국대 전산원은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됐지만, 그간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으로 인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국대 전산원은 내부 공모와 전문업체 의뢰를 통해 6개의 새 명칭을 제안받았고, 내부 구성원 투표를 통해 '동국대 핵심역량교육원' 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국대 DUICA(듀이카)' 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제337회 이사회에서 보고됐으며, 당시 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손재현 전산원장은 "동국대 전산원도 시대에 맞는 새 명칭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관이라는 의미의 '동국대 DUICA' 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향후 건강관리학과 · 반려동물학과 등 시대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려한다. 또한 제2 반야관 증축 등을 통해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특수대학원인 '미래융합대학원' 을 신설키로 결의했다. 미래융합대학원 내에는 융합상담코칭학과가 개설된다. 융합상담코칭학과는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하며 상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과정은 2년 6개월이며, 정원은 40명이다.

이사회 개회에 앞서 이사장 성우 스님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께서 2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해 주셨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승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9년만에 종별 선수권 정상을 차지한 동국대 농구부에 대한 격려금이 전달됐다.

신성민 기자

백담사 일원서 삼보사찰 예비순례

9월 2일부터 3일까지 만해마을서 시작

오는 10월 첫발을 떼는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앞두고 9월 2일부터 예비순례가 인제 만해마을과 백담사 일원에서 진행된다.

상월결사는 최근 9월 2일 오후 6시부터 9월 3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25KM구간에서 삼보사찰 예비순례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순례는 오후 6시 집결 후 오리엔테이션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대한 의미 등이 소개되며, 수칙 등이 공지된다. 3일 새벽 3시 기상 후 용대리를 거쳐 백담계곡을 따라 백담사로 향하게 된다.

백담사는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회향 후 무문관 정진을 한 곳으로, 조계종립 기본선원이 위치하고 있다. 출발지인 인제 만해마을은 오현스님의 유지에 따라 동국대가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예비순례는 천리순례와 마찬가지로 참가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참가자는 사전에 1차 접종 혹은 2차 접종 후 출발 3일전 PCR검사 음성통보를 받은 자로 동행시에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순례 준비물은 만행을 위한 신발과 복장, 손전등 등 개인 물품이다.

상월결사 관계자는 "설악산은 우리나라 선종의 인재를 키워낸 모태와 같은 곳으로 백담사는 현재 종단의 기본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삼보사찰 순례에 앞서 수행가풍 확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2022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 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5(2021)년 8월 16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경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 선정 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1년 9월	2021년 9~10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2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년 8월 16일(월) ~ 9월 6일(월)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1) 2022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 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yong@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행정관 김용태
-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신청기한 엄수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 처리